

## 「경주가 끝난 뒤」, 『장자』의 우화와 함께 읽기

김 철 수

“any text is constructed as a mosaic of quotations;  
any text is the absorption and transformation of another.”

—Julia Kristeva, *Desire in Language*

### 1. 들어가는 말

「경주가 끝난 뒤」(“After the Race”)는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1882-1941)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을 구성하는 열다섯 편의 단편들 중 청년기(Adolescence)에 해당되는 두 번째 작품이다. 1904년 12월 17일자 『아이리시 홈스테드』(*Irish Homestead*)에 발표한 이 작품은 조이스가 파리 유학시절에 『아이리시 타임즈』(*Irish Times*)의 통신원 자격으로, 당시 더블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 2회 제임스 고든 베네트 배 자동차 경주대회(the second James Gordon Bennet cup race)에 참가하기로 한 프랑스의 자동차 경주 선수인 앙리 푸니에르(Henry Fournier)를 인터뷰하여 “The Motor Derby”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이스 본인이 여러 차례 다시 쓰고 싶다는 의견을 밝힐 만큼 크게 만족하지 못했던 이 작품은 「망자」(“The Dead”)나 「작은 구름」(“A Little Cloud”)처럼 아일랜드와 외세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CW 107).

조이스 자신은 1906년 8월 16일자와 11월 6일자 동생인 스타니슬로스(Stanislaus Joyce)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이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과 더불어 다시 쓰고 싶은 최악의 이야기라고 기록하고 있다(SL 97, 127). 또한 월즐(Walzl)은 이 작품이 그의 단편들 중에서 “가장 최소한의 비평적 관심을 받았지만,”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들 중 유일하게 “유복하거나 세계적인 인물들(194)”을 다루고 있다고 논평한다. 즉 대부분 다른 단편의 주인공들이 진정한 모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에 죽치고 있는 사람들”(D 31)이거나, 빈곤과 무기력에 찌든 노동자층인 것을 고려하면,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의 사회적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가장 빈약한 스토리”로 나타나며 “비평가들의 비난에 가장 취약한 작품”이라고 혹평하면서도 그 모든 취약성을 “남성성과 남성주의의 역설을 상징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68). 이 단편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는 조이스가 “중하류층의 더블린 사람들을 묘사할 때는 천부적인 솜씨를 잘 발휘했지만” “더블린의 신흥 부자들이라든지 국제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민태운 166).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조이스가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정 없이 『더블린 사람들』에 게재한 이유는 우선 한 번 출판된 작품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조이스의 작품에 대한 “책임감”(Stanislaus 199) 때문이기도 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재현이 불가능한 아일랜드 부르주아 사회의 양상”(Walzl 195)을 실제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리처드 엘만(Richard Ellmann)은 이 단편이 「에블린」(Eveline)과 더불어 조이스가 그의 동시대 작가인 예이츠(W. B. Yeats)의 작품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의 자기희생의 미덕을 칭송한 『캐틀린 백작부인』(The Countess Cathleen)에 대한 카운터파트로 아일랜드에 발목을 잡혀 “무기력한 짐승”(D 41)으로 전락한 에블린을 동명의 작품에 등장시켰는가 하면, 한 해 전에 출판된 “Red Hanrahan”이라는 예이츠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그 작품에 등장하는 켈트식의 영웅 대신 외국식의 세련된 교양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빗더미에 앉은

채 더블린으로 돌아오고 만 지미 도일(Jimmy Doyle)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164-65).

페어홀(Fairhall)의 말대로 “『더블린 사람들』의 어떤 단편들보다도 지위와 의미를 생성해 주는 매체로서의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392)는 이 단편의 제목인 “After the Race”는 경주 참가 차 아일랜드에 와서 얼마간 머무르겠느냐는 조이스의 질문에 푸니에르가 “After the race?”라고 반문한 일화를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제목이 갖는 표면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 있음”(민태운 168)을 뜻하는 “After”와 스포츠로서의 “경주” 뿐 아니라 “민족”이나 “인종” 등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Cheng 103) “the race”가 어우러져서 당시에 실제로 개최되었던 유명한 유럽의 자동차 경주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인종들의 각축의 양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after”가 지닌 또 다른 뜻, 즉 ‘누군가를 뒤쫓는다’는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이 단편은 자신보다 더 유력하고 유복한 인종이나 종족을 부러움과 시기의 마음으로 뒤쫓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부르주아 가족의 이야기 또는 아일랜드 민족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과 의미를 바탕으로 해석되어 온 단편 「경주가 끝난 뒤」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평판 등 개인적 욕망의 추구의 과정에서 자아를 상실해가는 한 아일랜드 젊은이와 그의 고향 더블린의 마비된 실상을 바라보는 조이스의 애증의 시선이자 의식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주제를 가진 조이스의 작품을 같은 마음으로 혼란한 시대를 바라보았던 장주(Chuang-tzu)의 우화의 거울에 비추어 다시 읽어봄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II. 『장자』의 우언 혹은 우화

중국 역사상 전국시대(BC 770-221)라 불리는 격동기의 한 복판이었던 기원전 365년 송나라의 몽현(蒙縣)에서 태어난 장주는 잦은 전란 속에서 자행되는 권력자들의 횡포와 상대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고, 그러한 참상 속에서 인간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결국 그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세를 풍자

함으로써 초월하고자 하는 사유의 방식을 찾아냈는데, 그 방식은 우언(寓言)이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장자』(Chuang-tzu) 제 27편인 「우언」에서 장주는 자신의 글에는 “다른 일에 빗대어 한 말이 십 분의 구 정도이고, 세상에서 중히 여겨지는 말이 그 중의 십분의 칠 정도이다”(장주 664)<sup>1)</sup>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말하는 사람의 주관을 배제하고 듣는 이에게 객관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야기의 형식에 기탁하는 것”(이국진 184)이며, 또한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옛 분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김학주 664)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우화(fable)라는 단어로 더 익숙해져 있는 이 우언은 “세속적 가치추구에 잠재되어 있는 어리석음과 추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흥미와 실감을 유발하여 추상적 관념에 대한 공감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이국진 184) 큰 효과를 발하는 서사의 기법이다.

현재 총 33편으로 전해져 오는 『장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내편」이며, 다시 그 사상이 부연되어 「외편」과 「잡편」을 이루고 있는데, 「내편」은 ‘어슬렁어슬렁 노닐[逍遙遊]’을 비롯한 7편, 「외편」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이 붙어있는 사람[駢拇]’ 외 15편, 그리고 「잡편」은 노자의 제자 ‘경상초[庚桑楚]’ 외 11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학주는 『장자』라는 책에 대하여 “시처럼 풍부한 상상과 뜻의 함축이 느껴지고 뛰어난 기지와 풍자가 신선한 표현 중에 넘치고 있”으며,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추구함으로써 ‘예의’나 ‘인의’ 같은 인위적인 규범으로 사람들을 구속하려는 유교에 의한 지배에 숨 돌릴 여유”(11)를 준 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자』에 담긴 사상에 대하여 김학주는 그 본체론에서는 “도란 아무런 조짐[朕]도 없는 것이다”라는 표현과 같이 무(無) 이전의 무라 할 수 있는 무무(無無)를 주장했고,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대는 곳이 없다는 의미의 ‘무대(無待)’의 경지에서의 자유, 그것도 절대적인 인간의 자유의 추구를 강조하였으며, 그 인생관은 현실과 이상, 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무아(無我)의 경지였다고 정리하고 있다(27-31).

『장자』에는 신화와 설화 및 새로운 창작물 등의 형식에 각종 사물과 동물, 그리고 주요 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로 구성된 약 200 여 개의 우언이 등장하며, 그 내용은 주로 자유와 초월을 주제로 하는 개인적인 인생관에서부터 당시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 사유”에

1) 寓言十九，重言十七，卮言日出，和以天倪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이국진 186).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풍자의 대상은 ‘백가쟁명’의 한 학파였던 선진유가(先秦儒家)였는데, 공자(孔子)를 비롯한 다수의 제자들이 우언에 등장하여 당시 지식인들에 미친 유가의 영향과 그에 대한 장자 학파의 집중적 비판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윤무학 332).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우언은 모두 세 편으로, 그 첫 번째는 「외편」으로 분류된 제 17편 「가을 물(秋水)」 2장의 ‘우물 안 개구리’의 우화이고, 두 번째로는 제 20편 「산 속의 나무(山木)」 8장의 ‘매미를 노리는 사마귀’의 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편」에 속하는 「모든 사물은 한결같음(齊物論)」 26장의 ‘나비의 꿈’ 우화이다. 다양한 공간에 구속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함을 풍자하는 첫 번째 우화는 ‘기꺼이 억압받고 있는’ 더블린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비와 관련이 있고, 자신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마귀의 우화는 역시 같은 처지에 있는 지미 도일을 비롯한 개별적인 더블린 사람에 대한 풍자이며, 마지막으로 꿈과 현실을 구분되지 않는 ‘나비의 꿈’의 우화는 실제와 구분되지 않는 몽환적 세계로부터 주제적인 탈출이 불가능한 더블린과 그 시민들의 현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장자』의 시선으로 읽어 본 더블린 마비의 대물림

#### 1. ‘기꺼이 억압받는’ 대중 vs. 우물 안 개구리

작품의 도입부는 더블린을 향해 질주하는 자동차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충알처럼 고르게 질주해”(D 42)오는 유럽인들과 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들의 적극적인 역동성과 “벌떼 같이”(D 42) 몰려든 아일랜드인들의 수동적인 무기력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 장면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대조적인 반응을 생산한다. 즉 ‘담쟁이 날의 위원회실’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의 하인즈(Haynes)가 우려하는 바대로, 경제적인 이익만 예상된다면 자신들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억압하는 영국 왕의 방문이라 할지라도 “환영사”(D 122)를 바칠 계획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처럼, 이날 “빈곤과 무기력에 찌든 경주로”(D 42)

위에 모여든 아일랜드인들은 “유럽의 부와 산업의 결정체”들의 아일랜드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 경기 전 조이스가 만났던 푸니에르와의 대화가 암시하듯이, 아일랜드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식이나 태도는 대체로 자기중심적 기반 위에 이루어져 있으며,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어디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의 최고 속도는 그의 시속 86 마일 정도 되겠군요. 그리고 평균 속도는 시속 61 마일 정도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계산이 맞게 되었다면요.’

‘어마어마한 속도군요요! 우리 도로를 태워버릴 정도겠네요. 제 생각엔 당신은 이미 당신이 달리실 우리 도로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라구요? 그럼 아직 코스를 모르신다구요?’

‘대충은 알아요. 대충요. 파리의 신문들에 소개된 정도?’

‘그렇다면 분명 그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겠죠?’

‘오, 물론이죠. 사실상 이 달이 가기 전에 아일랜드에 가서 코스를 확인할 생각입니다. 아마 3주 내에 가게 될 거예요.’

‘아일랜드에 좀 머무르실 생각인가요?’

‘경주가 끝난 뒤에요?’

‘네.’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CW 108)

스태니슬로스가 “순진하다(ingenuous)”(CW 225)고 표현한 위의 인터뷰에 따르면, 푸니에르는 자신이 출전할 더블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경기가 끝난 후에는 더 머무르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의 유력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줄 것으로 믿는 더블린 사람들과는 달리 실제 유럽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만큼만 아일랜드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빈센트 쉹(Vincent Cheng)의 주장대로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독일로 대표되는 역동적인 유럽 세력의 속도와 부와 산업 등의 성취는 아일랜드와 같은 무기력한 식민지를 착취한 결과로 얻어진 것인데, 정작 피식민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희생자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기를 포기한 채, 오히려 식민 세력의 가치를 스스로 내재화 한 합의상의 노예들이 되어 그러한 결과를 고마워

하며 기꺼이 억압받기를 자청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일랜드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아이러니 중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105). 그런가하면 이 단편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분야로 확장된 마비의 주제를 읽어내고 있는 피크(C. H. Peake)는 “조이스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의 희생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24)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작품의 도입부에 집단으로 등장하는 희생자들과는 달리, 일찌감치 어느 정도 깨어있는 의식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주인공 아버지 도일 씨는 일찌감치 애초에 품었던 정치적 열정을 경제적 이득을 향한 욕망으로 변경시켰던 사람이다.

청년의 아버지는 급진적인 독립당원으로 생애를 시작했으나 일찌감치 정치관을 바꿔 버린터였다. 청년의 아버지는 킹스타운에 정육점을 차려서 돈을 버는 가 하면, 더블린과 그 근교에 가게를 내서 몇 차레나 더 돈을 벌었다. 또 운 좋게 경찰서 쪽 계약을 몇 개 따낸 끝에 마침 더블린 신문으로부터 호상 소리들을 만큼 부자가 되었다. (D 43)

이와 같은 도일 씨의 기민한 이력 속에는 아일랜드 문예 부흥 운동의 영향을 힘입어 딸의 출세를 도우려 했던 「어머니」(“A Mother”)의 커니 부인(Mrs Kearney)과 아버지의 정육점을 물려받아 번 돈으로 딸의 번듯한 출가를 위해 하숙집을 열었던 「하숙집」(“Thew Boarding House”)의 주인공 무니여사(Mrs Mooney), 그리고 「두 건달」(“Two Gallants”)의 주인공 중 하나인 콜리(Corley)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위해 억척을 부린 더블린의 중산층의 부모들의 그림자가 상호텍스트적으로 직조되어 있다.

자수성가 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세대의 열악한 처지나 빈곤으로부터 오는 강박을 자식의 성공을 통해 극복하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도일 씨 역시 같은 이유로 “그의 아들 지미에 대한 야심”(Walzl 195)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피식민의 멍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망”(민태운 176)에서 지미를 아일랜드에서는 개신교도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인 트리니티 대학에, 그리고 영국에서도 역시 사립대학인 캠브리지에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암울하고 답답한 식민지의 수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세상 물질 좀 익히도록”(D 43) 제국의 대학에 아들을 보낸 그의 야망은 사실상 그 아들을 다시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으며, 그의 모든 평가의 기준을 “현금적

가치”(Peake 24)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는 왜곡된 가르침을 내면화시켰을 뿐이다.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SL 83)으로서의 『더블린 사람들』이 출발한 곳은 바로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마비의 중심”(SL 83)이었던 식민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이었는데, 그 도시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비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마비가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황하의 신과 북해의 신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장자』의 「외편」중 하나인 「가을 물(秋水)」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하여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공간의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에 관한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뿔어진 선비에게 도에 관하여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침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은 물가를 벗어나 큰 바다를 보고서야 당신의 추함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이제야 위대한 도리를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주 392)<sup>2)</sup>

위의 인용문은 가을철에 불어난 냇물로 인해 흐름이 커져서 우쭐해 하던 황하의 신이 북해라는 큰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고 반성의 말을 전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북해의 신이 언급한 내용이다. 위의 가르침을 마비의 원인에 적용해 보자면, 우선 자신의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공간의 구속과 앞으로 다가올 더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의 구속, 그리고 체험이나 학습을 통해 습득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는 경험적 지식의 한계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미 도일이라는 이름의 젊은 주인공의 육체적·정신적 마비의 출발점은 이처럼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 또는 극복하지 못했거나, 그 한계 안에 갇힌 채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오만한 태도로 왜곡된 정서를 전수한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기성세대와 같은 ‘기꺼이 억압받는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北海若曰：「井蛙不可以語於海者，拘於墟也；夏蟲不可以語於冰者，篤於時也；曲士不可以語於道者，束於教也。今爾出於崖涘，觀於大海，乃知爾醜，爾將可與語大理矣。」



## 2. 더블린의 마비 vs. 『장자』의 마비

조이스는 1904년 10월 4일에 「경주가 끝난 뒤」를 탈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L 32). 이 작품의 주인공인 지미 도일의 이름은 대륙의 친구들에게 “아일랜드의 종족”(Culleton 18)을 연상하게 하는 성(Doyle)과 독자들에게 조이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Jam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이스가 스물두 살 때 탈고한 이 작품 속 주인공의 이력 속에는 조이스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발견된다.

조이스 자신의 실제 이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스물여섯쯤 되는 나이”(D 43)의 도일은 당시의 조이스처럼 20대 청년이었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를 두었으며, 더블린을 벗어나 해외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전술한 그의 아버지의 기묘한 경력 덕택에 정육점 집 딸 폴리(Polly)와 경찰관의 아들 콜리, 영국으로 가서 기자가 된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의 갤러허(Gallaher) 등 더블린의 마비를 대물림 받은 작품 속 상당수의 젊은 주인공의 이미지들이 도일에게 결집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 설정을 통해서 조이스는 당시 더블린에 거주하던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이들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작가인 자신 스스로를 작품 속에 배치함으로써 그러한 삶의 유형으로부터 자신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자동차 경주 장면과 호텔에서서의 만찬, 그리고 요트에서의 카드놀이 등 크게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편의 흐름 속에서 지미는 유럽에서 온 세 친구 샤를 세구앵(Charles Ségouin), 앙드레 리비에(André Rivière), 그리고 빌로나(Villona)와 함께 쾌락과 질주의 본능을 유감없이 즐기고 있다. 커슈너(R. B. Kershner)는 이 단편의 여러 부분에서 듀마(Alexandre Dumas)의 『삼총사』(Three Musketeers)의 분위기를 읽고 있다. 예컨대 덩치 큰 헝가리인 친구는 포르토스(Porthos), 조용한 리비에르는 아토스(Athos), 유쾌한 세구앵은 삼총사의 리더인 아라미스(Aramis), 그리고 신흥 부자의 아들인 지미는 그 세 명의 총사들 너무 흡모하여 따라다니는 시골출신의 달타냥(d'Artagnan)으로 해석한다(74-75).

노리스는 조이스가 푸니에르를 상대로 했던 인터뷰 기사의 서문을 근거로, 조이스가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자신을 푸대접한 그에게 복수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어서 그는 조이스가 자신의 의도를 실현시키

기 위해 “환락에 빠진 프랑스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자동차에 관한 지식으로 젊은 아일랜드 청년을 감동시키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변모시켰으며, 더 나아가서는 “프랑스의 남성성이 아일랜드의 사회적·문화적 불안정성을 착취”함으로써 아일랜드에서의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닦았음을 암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덧붙인다(70).

결국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신분적 안정감 때문에 만족감에 들떠있는 두 명의 프랑스인들과 낙천적인 성격에다 자신이 풍족하게 먹은 음식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구 헝가리인 빌로나와는 달리 아일랜드 청년 도일은 “너무 흥분해서 정말로 기분 좋은지 어떤지도 모를 판”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D 43). 거의 무아지경이라 할 수 있는 도일의 흥분의 상태가 갖는 문제점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만족감 보다는 “다른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바”(Leonard 114)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삶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Peake 23)인데,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앞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그는 맹목적인 속력에 집착한다.

공간을 쾌속 이동하는 것이 사람을 우쭐하게 만든다면, 평판도 그렇고 재력도 그러하다. 이것들이 바로 지미가 들떠 있기에 충분한 이유 세 가지였다. 지미는 이날 이 대륙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여러 친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D 44)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오직 하나의 목적에 침윤되어 자아를 잃어버리고 몰두하는 지미 도일의 모습은 『장자』 20편 「산 속의 나무(山木)」 8장에서 이상한 새를 쫓아가던 장주의 경험과 맥을 같이 한다. 조롱이라는 이름의 숲 속에서 이상한 새 한 마리를 발견한 장주는 그 새를 잡으려고 활을 겨누던 중,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이 때 보니 한 마리의 매미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기 몸조차 잊고 있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사마귀가 나뭇잎에 자신을 숨기고서 그 매미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잡으려는 생각에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까치는 이놈을 보고서 잡으려 하여 이익 때문에 그 자신을 잊고 있었다.

장자가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아아, 물건이란 본시 서로 해를 끼치며 이해를 서로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탄궁을 버리고 되돌아 도망을 치자 산림을 관리하는 우인이 뒤쫓아와 이유를 캐물었다.

장자는 돌아와서 사흘 동안 유쾌하지 않았다. 그의 제자인 인자가 그것을 보고서 물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요새 매우 불쾌하십니까?”

장자가 말하였다.

“나는 외형을 지키느라 내 몸을 잊고 있었다. 흐린 물을 보느라고 맑은 연못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내가 선생님께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습속으로 들어가서는 그곳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 나는 조롱에 놀러 나갔다가 나의 몸을 잊었던 것이다. 이상한 까치는 나의 이마를 스치고 밤나무 숲으로 날아가서는 그의 몸을 잊었었다. 그리고 밤나무 숲의 우인은 나를 도적으로 알고 욕보였으니 나는 그래서 불쾌한 것이다.” (장주 487-88)

“경찰과의 결탁을 통해 ‘호상’이 되느라고 민족주의를 버린 아버지”(Peake 23)로부터 왜곡된 가르침을 전수받은 아들 지미는 “자신의 신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타자에게 노예적으로 의존”(Leonard 116)하게 되고, 아직 “기대되는 수준에 불과한”(Norris 69) 프랑스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얻게 될 막대한 이익의 환상을 쫓느라, 마치 우화 속의 장주처럼 자신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날 저녁 제국의 “수도의 탈”(D 46)을 쓴 식민지의 수도 더블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만찬은 자본과 민족주의, 그리고 평화의 탈을 뒤집어 쓴 허울 좋은 세계주의자들의 행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식민지 청년 지미의 눈에 비친 “영국 청년의 예의범절이라는 견고한 골격” 위에 우아하게 감겨 든 “프랑스 청년들의 활기찬 젊음”(D 46)의 실체는 지미 자신이 헛되이 노리고 있는 자본의 탈(a mask of capital)을 쓴 제국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후에 정치 이야기로 대화의 초점이 옮겨갔을 때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지미가 영국 청년을 자극하는 데 사용했던 “감춰두었던 아버지의 애국심”(D 46)도

3) 睹一蟬方得美蔭而忘其身; 螳螂執翳而搏之, 見得而忘其形; 異鵠從而利之, 見利而忘其真. 莊周怵然曰:「噫! 物固相累, 二類相召也。」捐彈而反走, 虞人逐而誅之. 莊周反入, 三月不庭. 藺且從而問之:「夫子何為頃間甚不庭乎?」莊周曰:「吾守形而忘身, 觀於濁水而迷於清淵. 且吾聞諸夫子曰:『入其俗, 從其俗.』今吾遊於矰罽而忘吾身, 異鵠惑吾類, 遊於栗林而忘真, 栗林虞人以吾為戮, 吾所以不庭也。」

결국은 그의 얼굴에 씌워진 “감상적 애국주의”(Nolan 29)에 불과한 민족주의의 가면일 뿐이었다. 그리고 지미와 영국인 친구의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세구앵이 제안했던 ‘인류를 위한’ 건배 제의는 “젊은 아일랜드 청년의 애국심만큼이나 의미가 없”(Nolan 31)는 평화의 탈에 불과하다. 왜냐면 건배 제의 직후에 “뭇가를 시사 하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젖”(D 46)힌 그의 태도는 “지미를 환상과 문헌 욕망으로부터 현실로 깨우는”(민태운 177) 행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갖가지 가면에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한 제국의 자본과 명성을 추구하느라, 자신마저 자본과 체면과 위선의 가면 안에서 본질적인 자아를 상실해 가는 지미의 모습 속에 “외형을 지키느라 내 몸을 잊고 있었다”(장주 488)고 스스로 한탄한 장자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더블린을 착취하고자 하는 유럽인들과 그 유럽인들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더블린 사람들, 그들을 애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가 조이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작품을 읽는 독자의 시선까지 하나의 연쇄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이 단편은 20세기 초 식민지 더블린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읽혀지는 현재의 시공간에 조성된 ‘조롱’의 숲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 더블린의 백일몽 vs. 『장자』의 호접몽

이 단편의 세 번째 부분인 요트놀이 장면에는 스타니스슬로스에 의해 조이스가 파리에서 사귀었다고 소개된 바 있는 “다양한 국적의 몇몇 자유분방한 친구들(a few bohemian friends)”(199)이 등장한다. 그리고 제국의 자본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본질을 상실해 가는 아일랜드의 신흥 부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작품 속으로 뛰어든 작가 조이스는 “미국인 친구의 요트”(D 47)에서 벌어진 카드놀이를 통해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카드 하자! 카드! 테이블을 치웠다. 빌로나가 조용히 피아노로 돌아가 오르간 독주곡을 쳐주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모험 속으로 몸을 던지며 끊임없이 노름을 했다. 하트 킨과 다이아몬드 킨에게 건배도 했다. 지미는 어렵פות이 관중이 빠졌다고 느꼈는데, 재치 번뜩이는 생각이었다. 판이 매우 커졌고 차용증서가 돌기 시작했다. 지미는 정확히 누가 따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잃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D 48)

노리스는 만찬장에서 세구앵이 좌중을 정치 얘기로 몰고 갔을 때, “너나없이 반색할 화제였다”(D 46)라고 했던 내레이터의 언급은 “어리석은 것이거나 풍자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치적 대화로 말미암아 지미와 루스(Routh) 사이에 조장된 극단적인 대립의 분위기가 거액의 판돈이 오가게 될 카드놀이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악한 목자”(73) 세구앵의 전략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의 주인공인 지미를 통해 아일랜드를 노리는 영국과 영국을 노리는 프랑스 등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각축의 세계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일랜드의 마비의 대물림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비판하던 조이스는 결국 그 자신 역시 ‘더럽게 사랑스러운 더블린’(dear dirty Dublin)에서 ‘호점몽’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륙의 친구를 통해 벌어들일 돈을 생각하며 흥분했던 지미는 카드놀이를 하는 동안에는 “소유가 아니라 손실”(Peake 25) 때문에 흥분한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누비면서 “그의 육체와 정신을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와 혼합시키려 했”(Riquelme 113)던 지미는 요트 위에서의 카드게임에서도 술과 분위기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며 일체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어렵פות이 관중이 빠졌다”(D 48)고 느끼면서, “항상 자신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던 타자의 시선이 사실은 공허한 눈빛”(Leonard 117)이었음을 잠시 깨닫긴 하지만 그때의 깨달음이란 그 어떠한 선하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단지 “모호한 순간”(Leonard 117)일 뿐이다.

“아침이 오면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D 48)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지미는 그러한 인식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덮어 줄 캄캄하고 멍한 머리”(D 48)와 애써 분리하지 않은 채 계속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지미의 의식 상태는 『장자』의 「내 편」에 속하는 2편 「모든 사물은 한결같음(齊物論)」, 26장에 나오는 「나비의 꿈(胡蝶夢)」을 연상하게 한다.

옛날에 장주莊周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그는 나비가 되어 펄펄 날아다녔다. 자기 자신은 유쾌하게 느껴졌지만 자기가 장주임을 알지 못하였다. 갑자기 꿈을 깨니 엄연히 자신은 장주였다. 그러니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장주와 나비에는 반드시 분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만물의 조화’라 부른다. (장주 98-99)<sup>4)</sup>

4) 昔者莊周夢爲胡蝶 栩栩然胡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 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 周與胡蝶 則必有分矣 此之謂物化

장주의 「호접몽」에 대한 해석은 그 역사가 계속되어 오면서 학자들 각자의 논거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표의문자로 이루어진 한문의 해석상의 문제로부터 기인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형체가 없는 도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화라는 보조관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원관념은 “독자로 스스로 찾도록 열어둔”(김권환, 신정근 406) 장주의 독특한 문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호접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꿈속에서 나비를 본 장주가 잠에서 깬 후 자신과 나비를 분간하지 못하는 장면을 해석한 가장 마지막의 두 문장인데, 이 장면은 일반적으로 사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로워질 것을 주장한 장주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소위 ‘물아일체’의 조화 상태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대한 경고와 풍자를 주요소로 하는 우화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했다.

즉 최근에는 장주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이 우화의 마지막 문장은 단순한 ‘조화’나 ‘일체’보다는 꿈속의 나비라는 환상과 현실의 나라는 참 사이의 구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헛것에 사로잡힌 것(物化)”(김권환, 신정근 418)이나 다름없다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sup>5)</sup>

장주가 경고하고 있는 이러한 ‘물화’의 현상은 「경주가 끝난 뒤」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유사한 이미지와 울림을 제공하고 있다. 실체 없는 허울로서의 자본과 명예를 추구하며 가면 쓴 타자로부터의 공허한 인정을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던 주인공 지미 도일은 결국 그러한 인정이 사라지고 나면 철저히 소외를 당하게 되고, 완전한 자각이 없는 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입으면서도 고집스럽게 현실 속을 걸어 다니는 몽유병 환자”(Leonard 116)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을 우화의 주인공으로 삼아 읽는 이로 하여금 허상과 진실 사이의 분별을 통해 참 자아를 찾을 것을 가르친 장주처럼 조이스 역시 자신이 가장 비관하고 싶었던 대상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여주고, 대를 이어 전수되고 있는 더블린

5) 「호접몽」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것.

김권환, 신정근. 『『장자』에서의 ‘호접지몽’ 우화 해석에 관한 연구』, 『철학논집』 제42집, 2015년 8월. pp. 391-421.

이택용. 『『莊子』의 ‘齊物論’ 胡蝶之夢 우화의 ‘物化’에 대한 새로운 해석』, 『동양철학』, 제42집, 2014, pp. 120-53.

의 마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읽는 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화를 통해 암시해 주고 있는 장주와는 달리 조이스는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중 가장 무산계급에 속하는 헝가리 출신 빌로나의 목소리를 통해 각성의 에피퍼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마주침」(“An Encounter”)에서 주인공 소년이 “마음 한구석에서 항상”(D 28) 깔보고 있던 마호니가 자신에게 “큰 소리로 대답”(D 18)해 주는 소리 통해 미완성으로 끝난 하루 동안의 일탈과정에서 만난 괴짜 노인으로 인해 겪게 된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지미와 독자들을 무기력한 마비의 상태로부터 일깨워주는 것은 가난한 한 유럽 출신 예술가의 “찌렁찌렁한 목소리”(D 46)였다.

#### IV. 나가는 말

「경주가 끝난 뒤」는 비록 작가 자신과 평자들에 의하여 다소 불완전한 플롯과 인물의 설정 등의 이유로 그리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진 못하지만,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들 중 유일하게 국제 관계와 경제적 거물 집안 출신의 주인공을 중심 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독특성을 지닌 작품이다.

유럽의 기술과 경제력의 각축장으로 변한 더블린의 한 복판에서 그러한 세력의 유입을 중심으로 더블린에는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외국 세력의 유입을 무작정 반기는 “기꺼이 억압받는” 일반 시민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시민들과 자신들을 유리시키며 자신이 확보한 경제력으로 외국의 세력에 접근함으로써 애써 그들과의 동질성을 확인하려 하는 부유층이다. 그러나 그 두 세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가진 자본과 노동력의 착취라는 동일한 내용의 결과일 뿐이다.

조이스는 이 단편의 중심인물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고 다른 작품 속의 많은 인물들과의 공통점을 첨가함으로써 당시 더블린에 거주하던 청년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빈자와 부자를 막론하고 자신을 둘러싼 형세에 대한 판단과 그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여타 더블린의 인물들을 통하여 ‘대물림되는 마비’로 마비되어가는 더블린을

보여주고 있다.

『더블린 사람들』 곳곳에 산재한 이러한 마비의 양상은 「자매」(“The Sisters”)의 플린 신부(Father Flynn)나 「마주침」(“An Encounter”)의 괴짜 노인처럼 본인도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만성적이거나, 「에블린」의 먼지처럼 출처를 알 수 없거나, 또는 「두 건달」의 비행이나 「하숙집」의 무니 여사의 단호함처럼 교활하고 야비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피로감 그리고 섬뜩함을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더블린의 마비 상황은 「가슴아픈 사건」(“A Painful Case”)의 제임스 더피(James Duffey)나 「경주가 끝난 뒤」의 지미 도일처럼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다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또 다른 마비를 형성하게 한다.

『더블린 사람들』전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이스는 더블린의 다양한 마비의 주요 원인을 식민지 아일랜드를 억압하는 영국 제국주의의 폭력과 식민지 정부의 무능(정치), 물질만능의 자본주의(경제), 그리고 인간 영혼의 구원이라는 본분을 잃고 타락한 교회(종교)와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가정(사회)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마비의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서는 「망자」(“The Dead”)의 게이브리엘(Gabriel)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의 시선으로 타자를 재단하기 보다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타자와의 공존’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가 끝난 뒤」에서 이처럼 연령과 빈부를 막론하고 만연되어 있는 더블린의 마비를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해 작품 속에 뛰어난 작가 조이스는 결국은 스스로마저 조롱하는 한 편의 우화를 창작한 셈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조이스의 우화는 물리적 한계에 갇힌 헛된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로의 성장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각종 우화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한 장주의 시선으로 읽었을 때 독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대)



## 인용문헌

- 김권환, 신정근. 「『장자』에서의 ‘호접지몽’ 우화 해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철학과. 『철학논집』 제42집. 2015년 8월. pp. 391-421.
- 김학주. 「『장자』는 어떤 책인가?」 장주. 『장자』. 김학주 옮김. 연암서가, 2010. pp. 11-32.
- 민태운. 『조이스, 제국, 젠더 그리고 미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4.
- 윤무학. 「장자의 우화에 반영된 유가」. 『동양철학연구』 제55집. 2008년 8월. pp. 327-60.
- 이종성. 「소요와 노닐 또는 걸림 없는 자유—장자 ‘소요유’의 부정정신과 자유의 식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67호. 2013. 03. pp. 31-55.
- 장주. 『장자』. 김학주 옮김. 연암서가, 2010.
- 조이스, 제임스. 『더블린 사람들』. 이종일 옮김, 민음사, 2012.
- 탁양현. 「『장자』의 비극미학적 사유방식」. 『동양철학연구』 제64집. 2010년 11월. pp. 161-89.
-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UP, 1995.
- Culleton, Claire A. *Names and Naming in Joyce*. U of Wisconsin P, 1994.
- Fairhall, James. “Big-Power Politics and Colonial Economics: The Gordon Bennett Cup Race and ‘After the Race’.” *James Joyce Quarterly* Vol. 28, No. 2, Winter 1991. pp. 387-97.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ited by Robert Scholes and Walton A. Litz. The Viking Press, 1969.
- .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Ellmann. Viking, 1975.
- . *The Critical Writings*. Edited by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Cornell UP., 1959.
- Kershner, R. B. *Joyce, Bakhtin, & Popular Literature*. North Carolina UP., 1989.
- Leonard, Gary. *Reading Dubliners Again: A Lacanian Perspective*. Syracuse UP., 1993.
- Nolan, Emer. *James Joyce and Nationalism*. Routledge, 1995.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Dubliners*. U. of Pennsylvania P. 2003.

Riquelme, John Paul. *Teller and Tale in Joyce's Fiction: Oscillating Perspectives*.

The Johns Hopkins UP., 1983.

Walzl, L. Florence. "Dubliners," in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Edited by Zack

Bowen and James F. Carens. Greenwood Press, 1984, pp. 157-228.

## Abstract

### Reading “After the Race” with the Fables in *Chuang-tzu*

Cheol-soo Kim

This study aims to re-read the fifth story of James Joyce’s *Dubliners* entitled “After the Race” by recording the genealogy of the spiritual paralysis of Dubliners. In particular, the study especially focuses on looking at economy descending from an affluent father to his son, with the inspiration of the fables of Chuang-tzu, a Chinese philosopher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ancient China.

There are two major groups of Dubliners in this story who are concerned with the influx of the technological and economic powers of Europe. One of them is the “gratefully oppressed” general public unconditionally welcoming the influx; the other is the wealthy, who try to identify themselves by being alienated from the poor and gaining access to foreign powers with their wealth. What is awaiting the two, however, are the same consequences of exploitation of their labor power and capital. As a result, focusing on immediate profits without understanding the situations surrounding themselves, they come to descend their paralyzed spiritual state and attitude to their descendants.

The fables of Chuang-tzu used to deplore the loss of humanity under the violence of the power and ridicule human limitations might be a useful tool to reflect the paralytic aspects of Dubliners in “After the Race.” Thus Chuang-tzu’s fable of “The Frog in a Well” may be read in parallel with the “gratefully oppressed” Dubliners trapped in the limits of time, space, and habits hardened by distorted teachings. In addition, that of “The Praying Mantis Aiming at a Cicada” reminds the reader of the paralyzed Dubliners, who lost themselves in pursuing their own economic interest in vain. Moreover, “The Dream of a Butterfly” illustrates the reality of Dublin’s paralysis, implying the need for a total awakening.

As a result, despite clear temporal and spatial gaps between Joyce and Chuang-tzu, surprising similarities are identified in the attitudes of the two figures

in considering the human conditions of their times, reminding the readers of the universal intertextuality regardless of such limitations.

■ **Key words** : Joyce, *Dubliners* “After the Race,” the genealogy of the spiritual paralysis, Chuang-tzu, Warring States period, fables, the dream of a butterfly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경주가 끝난 후」, 정신적 마비의 대물림, 『장자』, 전국시대, 우화, 호접몽)

논문접수: 2018년 11월 19일

논문심사: 2018년 12월 10일

게재확정: 2018년 12월 19일